오이디푸스 왕 감상문

오이디푸스 왕은 어렸을적 “그리스”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만 접했던 나에게 첫 비극 작품인 셈이다. 생각보다 가독성이 낮아 읽기가 힘들었다. 특히 합창단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 몇번이나 다시 읽어야했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보니 내용을 이해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은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내 어린시절을 떠올려보면 엄마를 아빠에게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운명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작품이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와 결혼한다는 신탁을 듣고 신하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아이가 불쌍해 죽이지 않았고, 결국 죽지 않고 자란 아이는 신탁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되었다. 신탁이 아니라 저주라고 불러야하지않을까 싶은 이 내용은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고 인간은 그 주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스스로 개척하여 살아가는 존재인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개인적으로 정해진 운명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의지대로 선택하는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의미가 무색해지고, 어떤 환경에 놓여져있는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가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운명은 정해져있는것이 아닌 인간은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이 든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오이디푸스는 예언대로 장님이 되었지만 장님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다 맞이한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었기때문에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것을 보여주려한것이라 생각이 되었다. 가정과 혼인의 수호신인 헤라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라이오스왕을 벌하려 스핑크스를 내려보낸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오이디푸스는 도시의 재난을 없애기위해 라이오스왕을 살해한 범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내의 오빠인 크레온에게 죄를 물었다. 크레온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아무런 증거없이 죄인으로 몰았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자신이 범인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예언가인 테이레시아스에게 사실을 들었음에도 부인하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려 화를내며 테이레시아스를 내쫓은 부분에서 통치를 잘했다는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남의 말을 듣지않고, 또 남을 아무런 증거없이 의심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것 같았다.

가장 통치를 잘했다는 왕이 사실은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한 자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아이러니함을 느꼈다. 그 당시 친족 살해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벌을 받지 않고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을것이라며 스스로 눈을 찔러 벌을 주고 딸의 부축을 받고, 테베를 방랑하며 살아간 점에서도 의문이 들었다.

작품을 다 읽은 후에 느낀점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이 구성이 탄탄했다는 점이다. 내용을 재구성하여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만큼 흥미가 있는 작품이다. 이런 구성덕분에 현대까지 작품이 읽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에 오이디푸스는 죽을 때 까지 자신의 딸 안티고네, 이스메네와 함께 떠돌아다니며 대중들에게 갖은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아테네의 시민들은 어서 꺼져버리라며 야유하였다. 그러다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를 만나게 되어 테세우스에게 자신의 일생과 자초지종을 말해주었고, 테세우스는 오이디푸스의 잘못이 아닌 저주때문이라며 오이디푸스를 동정하고 위로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일생을 마감할 장소를 정해 테세우스와 함께 죽을 장소로 정한 동굴로 들어갔다.

오이디푸스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오이디푸스가 묻힌 장소는 테세우스밖에 모른다고 한다.

오이디푸스의 자식들에게도 저주가 전해진 것인지 쌍둥이 형제인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왕위 다툼을 하며 테베를 차지하기위해 싸우다가 동시에 죽어버린다. 두 딸 중 안티고네는 테베를 침공한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크레온에의해 감금되고, 결국 자살한다. 이스메네는 언니의 죽음에 절망하여 자살한다. 후에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비롯해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과 그의 아내까지 자살하게되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그의 소중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현대인에게까지 교훈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